우암학원 창학 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1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029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3일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갓난아기 월급 60만원 강진군 출산율 40%↑

육아수당 7년 최대 5040만원
전국 지자체 중 최고·최장 지급
특별 제도 시행 9개월 만에
출생아 수 59→83명 '껑충'
산후조리비 등 복지 정책 성과

강진군이 한 아이당 무조건 매달 60만원을 7년간 지급하는 육아수당 지원책이 출산율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존에 타 시군구에서도 다양한 육아지원책이 있었으나, 강진군과 같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큰 액수의 현금을 바로 지원하는 육아정책은 없었다.

강진군의 육아수당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금액, 최장 기간을 자랑한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누적 120명에게 7560만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육아수당 시행 9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진군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육아수당 시행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9명이 태어난 반면, 육아수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83명이 출생했다.

임준형 강진군 군민행복과장은 "같은 기간에 전남 출생등록자 수 2.7%, 전국 4.49% 감소했지만, 강진의 경우 40.6%가 증가했다"면서 "육아수당 시행 이후 강진으로의 전입 초과 현상에 따른 사회적 이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육아수당은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진원 군수의 뚝심과 의회의 협조로 탄생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강진군은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산후 조리비로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는 출산 가정에는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경우 만 0세까지는 부모 급여 70만원을, 만 1세까지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하고,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군은 또 기저귀와 체온계 등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제공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300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00만원을 각각 해당자에 대해 지원한다.

이 밖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110만원과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 126만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2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강진군은 육아수당 시행 1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부모 간담회와 참여자 만족도 조사할 방침이다. 육아수당 지급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더욱 안전한 사회망과 출산 장려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육아수당이 실제 출생아 증가로 이어진 만큼, 강진군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광주 동물보호소 유기동물 절반 안락사 위기 ▶6면

굿모닝 예향 - 드라마 촬영지 남도 여행 ▶18·19면

클린스만호 엘살바도르전 첫 승 예감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방탄' 논란 사법리스크에 승부수
"윤정부 국민포기 5포 정권"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자신을 옭죄고 있는 사법리스크와 관련, '방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을 결자해지하겠다는 '깜짝 선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리더십 논란은 물론 당에 드리운 '도덕성 위기'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닻을 올릴 당 혁신기구에 힘을 실어주려는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구속 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리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對) 중국 외교에 대해선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당 상황과 관련해선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면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변화와 개혁을 다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수능 '킬러문항'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당정, 교육 경쟁력 제고 대책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킬러 문항 배제는 당장 9월 모의고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2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결정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은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정 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변별력' 유지를 위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의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3(도심: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 471, 공차중량(kg) : 2355,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